

# 韓國에 있어서 林野地의 草地開發展望\*

P. Weinberger

한독초지사업기구(통역: 축산시험장 이기종 연구관)

山岳地 및 丘陵地의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報告와 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사작업은 傾斜度45% 이하로 국한하였다. 이러한 경사도의 상한선은 林野地의 58.6%가 본 경사범위에 속하며 잠재 초지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될 수 있어 편의상 국한시킨 것이다.

임야개발을 위한 제한요인은 분석작업은 2개 group의 요인들로 구분 되었다.

첫째는 식물환경요인(토양의 화학적 특성 토심, 석력, 함량)을 결정하는 生態的 條件을 들었고,

둘째는 임야지를 경제적인 여러 측면(묘지의 유무와 빈도, 지형조건, 조림의 정도와 종류)에서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 活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들었다.

석력함량은 초지조성에 그렇게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고 대조적으로 유효토심의 초여름 동안 수분공급의 결여 때문에 특정 제한 요인으로 부각 되었다.

대체로 생태적인 제한요인들로 구조적인 장애요인들 보다는 덜 중요하였다. 본 구조적인 장애요인들 중에서 첫째로 지형제한 요인에 관해서 논의하겠다.

한국의 산지의 심한 단애현상(Dissection) 때문에 大規模의 균일한 지형의 변함이 드물다. 이와 關聯

해서 “Overall available area(개발가능면적규모)”의 용어로서 논의하면 조사지역의 8%가 5ha보다 컸으며 약 42%가 0.5ha 보다 적은 개발가능면적규모를 보였다.

묘지는 표본조사지역의 1/4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으며 그 정도는 매우 많고 산만하게 分布되어 있었다. 본 묘지 밀도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초지개발이 적기로 판정되는 곳으로 이러한 지역의 빈도는 높았다.

본 조사과정에서 산림상태의 특성에 관해서도 資料를 수집하였다. 한 예로써 보여 드리는 그림은 맹목의 임상을 나타낸다. 조사지역의 약 1/4이 ha당 20m<sup>2</sup>를 초과하는 임상을 갖고 있음이 판명 되었고 이런 지역은 임목으로 놓아 두는 것이 좋다.

한국정부의 임야지의 조림사업 계획은 토지가 매우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토지는 초지개발을 위해 유보되어야 한다.

본 제안은 한국측에서도 인정된 토지이용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모든 생태적 구조적 제한요인을 고찰할 때 林野地는 초지개발 가능적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조사결과 152,000ha는 매우 적합한 초지 개발 가능지로 다른 388,000ha는 보통 적합한 초지개발지로 보인다.